

인간 이해를 위한 ‘종교적 정체성’(Religious Identity) 연구의 중요성*

— 존 녹스의 1550년대 행적을 중심으로 —

안 신**

- I. 서론
- II. 1554년 망명: 잉글랜드의 스코틀랜드 목회자
- III. 1555년 귀환: “나의 나라” 스코틀랜드
- IV. 1556년 망명: ‘하나님의 나팔소리’
- V. 1559년 귀환: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연합
- VI. 제인 도슨의 이론: ‘정치적 정체성’은 새로운 대안인가?
- VII. 종교적 정체성: ‘제사장’ 녹스와 ‘예언자’ 녹스
- VIII. 결론

I. 서론

역사적으로 영국 스코틀랜드 정신사의 ‘양대 기둥’(two pillars)을 언급한다면, 16세기 종교개혁가 존 녹스(John Knox, 1514-1572)와 18세기 종교철학자 데이빗 흄(David Hume, 1711-1776)을 들 수 있다. 전자가 강한 종교적 신념에 사로 잡혀 (혹자는 ‘신의 섭리’로 해석하기도 한다) 스코틀랜드를 가톨릭교(Catholicism)로부터 개신교(Protestantism)로 ‘개혁’(reformation)한 (구교의 입

* 본 논문은 영국정부 장학금(Overseas Research Students Award Scheme, 분야: 종교학)과 왕립 역사 학회(Royal Historical Society) 연구기금(분야: 종교사)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완성되었다. 필자는 예일대의 종교심리학자 제임스 디티스(James Dittes) 교수와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종교심리학자 도널드 캡스(Donald Capps) 교수의 ‘전기적 분석’(Biographical Analysis) 방법을 일부 수용하여 녹스의 사례에 적용하였다.

** 영국 에딘버러대학교 종교학 박사 및 서울대 강사

장에서는 폭력을 동원한 종교 박해를 통한 ‘변질’(proselytizm)라 평가한다) 루터와 칼빈에 버금가는 인물로 평가된다면, 후자는 (녹스가 이룩한) 기성 종교전통에 대한 강한 회의와 비판을 통하여 서양 철학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경험주의’(empiricism)와 ‘계몽주의’(Enlightenment) 전통을 이끌어 내어, 이후 합리주의와 이성주의의 형성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현대 종교철학의 아버지’라고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인물은 스코틀랜드와 영국을 넘어 세계 정신사에서 ‘종교’에 대한 두 가지 태도, 즉 (1) ‘(종교에 대한) 변혁/지지’와 (2) ‘(종교에 대한) 비판/회의’의 태도를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두 인물 ‘모두’(both) 자신의 경험과 이를 통해 형성된 신념을 가지고 ‘종교적 삶’(religious life)을 살았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그들이 살던 당시 전통적인 (종교적) 세계관과의 심각한 조우 아래 형성된 나름대로의 ‘종교적 정체성’이 - 그 형태가 ‘지지’ 혹은 ‘회의’로 나타나던 간에 상관없이 - 그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했고 동시대인들과는 구별되는 독창적이며 혁신적인 종교사상을 배태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종교적 정체성’을 통한 ‘인간 이해’라는 관점 아래, 하나의 사례로서 존 녹스의 1550년대 행적을 분석할 것이다. 18세기 종교적 세계관이 16세기 존 녹스의 삶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녹스에 관한 본 논문은 앞으로 진행될 “데이빗 흄의 종교적 정체성 연구”에 대한 시론이기도 하다.

존 녹스는 1505년에 출생한 것으로 믿어져 왔다.¹⁾ 그래서 이미 1905년에 그의 탄생 4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갖기도 했다. 그러나 요즘엔 ‘1505년 설’이 부정되고 대신에 ‘1514년 설’이 역사학계에서 인정되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해 1513년 후반부에서 1515년 초반부 사이일 것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²⁾ 현재 에딘버러 대학교의 뉴 칼리지(New College) 안에 위치해 있는 녹스의 청동상에도 이러한 견해가 반영되어 있다.³⁾ 녹스는 1514년경 에딘버러(Edinburgh)에서 서쪽으로 약 1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이스트 로티안(East

1) G. B. Smith, *John Knox and the Scottish Reformation* (Edinburgh: The Religious Tract & Book Society of Scotland, 1905), 9.

2) E. Percy, *John Knox*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37), 9.

3) 뉴 칼리지 안에 위치한 녹스의 상은 1514년 설을 따르고 있고, ‘왼손’에 성경을 든 채 ‘오른손’을 높이 들고 설교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 반대로, 그가 담임목사로 섬기던 로얄 마일의 세인트 자일즈 교회 안에는 ‘오른손’에 성경을 가지고 ‘왼손’을 들며 설교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Lothian) 지역의 하딩턴(Haddington)에서 농군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래서인지 그의 초기 행적은 묘연한 상태에 있다.⁴⁾ 그는 잉글랜드와 유럽대륙에서 약 12년간 망명생활을 한 후, 에딘버러에 돌아와 16세기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완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지금도 에딘버러의 로얄마일(Royal Mile)에 위치한 세인트 자일즈 교회(St. Giles Cathedral)에는 이 교회의 설교자였던 녹스를 기념하는 또 '다른' 청동상이 서 있다. 1572년 11월 24일에 사망한 그의 시신은 이 교회 남쪽 묘지에 묻혔을 것으로 추정되며, 지금은 노란색의 사각 표지만이 그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녹스는 칼빈처럼 '우상화'될 수 있는 자신의 무덤을 만들지 말 것을 유언으로 남겼다고 한다). 그는 여전히 16세기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에 핵심인물로 기억되고 있으며, 지금도 그의 개혁정신을 기리는 순례자의 행렬이 에딘버러에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 논문은 종교개혁가인 녹스의 삶 가운데 유럽대륙에서 보낸 후기 망명시기를 중심으로, 그의 정치와 종교에 관련된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논의의 중심으로 삼을 것이다. 학계에서는 녹스를 미국과 영국의 청교도 정신의 '창시자'라는 입장⁵⁾과 그를 단순한 루터와 칼빈의 사상을 모방한 '전수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 대립되어 왔다.⁶⁾ 이러한 논쟁은 최근까지 그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16세기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중심인물로 활동한 녹스는 '정말 스코틀랜드인이었는가?' 아니면, 그는 12년간의 방랑생활 가운데 '잉글랜드인으로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⁷⁾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

4) 녹스 사후에 출판된 그의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에서도 그의 유년기에 대한 언급을 찾아 볼 수 없다.

5) T. Carlyle, *On Heroes, Hero-Worship, and the Heroic in History* (London: Chapman & Hall Limited, 1840), 168-180. 칼라일은 역사의 "영웅"으로서 루터와 녹스를 사제로서 비교하며 소개하고 있다. 스코틀랜드뿐만 아니라, 잉글랜드의 청교도를 넘어 미국 뉴 잉글랜드 지역으로 퍼져 나간 청교도 정신의 원류를 녹스의 삶 속에서 찾고 있다. "The Puritanism of Scotland became that of England, of New England.... [Knox] is the one Scotchman to whom of all others his country and the world owe a debt. He has to plead that Scotland would forgive him for having been worth to it any million 'unblamable' Scotchmen that need no forgiveness."

6) H. MacDiarmid, C. Maclean, and A. Ross, *John Knox* (Edinburgh: The Ramsay Head Press, 1976), 27. 맥클린은 녹스가 칼빈으로부터 신학 사상과 가톨릭에 대한 비판 그리고 종교개혁의 청사진을 모두 빌려왔다고 주장한다.

7) MacDiarmid, Maclean, and Ross, *John Knox*, 11-43. 맥클린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에서 녹스의 역사적 위치와 그의 정체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녹스는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지만 근 12년간의 목회경험은 잉글랜드의 회중과 깊이 관

하여, 필자는 녹스가 유럽 대륙으로 망명한 1554년부터 에딘버러 조약이 맺어지는 1560년까지의 약 6년간의 시기에 걸쳐 그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검토를 토대로, 녹스의 정체성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된 ‘제인 도슨의 (정치적) 이론’을 ‘종교적 정체성’이라는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II. 1554년 망명: 잉글랜드의 스코틀랜드 목회자

녹스의 출생만큼 그의 교육 배경도 불확실하다. 글래스고우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이론이 최근에는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이라는 의견과 충돌하고 있다. 1540년에 가톨릭 사제로서 서품을 받아 교황청의 공증인으로 활동했지만, 그가 언제 어떻게 개신교 신앙으로 ‘개종’(conversion)⁸⁾을 하였는지도 아직까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그가 임종을 앞두고, 그의 아내에게 “가서 내가 처음 닦을 내린 곳을 읽어달라”⁹⁾며, 요한복음 17장을 읽도록 요청한 것을 보면 (어거스틴처럼)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던 중 ‘개종’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녹스는 1543년 롱니드리의 더글라스(Hugh Douglas)와 오미스톤의 콕번(John Cockburn)의 아들들의 개인교사(tutor)가 되었다. 이 귀족들은 개신교인들로서 잉글랜드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 다음 해에 녹스는 로티안 지방에서 설교 여행을 하던 종교개혁가 위샤트(George Wishart)를 보호하며 동행했다. 위샤트의 설교는 로마 지지세력을 자극하였고, 그는 결국 세인트 앤드류스에서 화형에 처해져 죽음을 맞게 되었다. 그의 죽음에 분노한 레슬리(Norman Lesley)를 비롯한 개신교 세력은 베이튼(David Beaton) 추기경을 살

려되어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녹스의 교회소속을 국가로 정의해야 한다면, 잉글랜드, 프랑스, 혹은 스위스는 될지언정 스코틀랜드는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8) 같은 기독교 전통 아래 있는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 상호간 교인의 수평이동을 굳이 타종교 간의 이동에 적용되는 ‘개종’(conversion)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16세기 스코틀랜드 상황 속에서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가 상호간의 존재를 ‘타종교’ 이상으로 부정하며 박해하고 서로의 ‘타자성’을 ‘악마화’시키는 뚜렷한 경향이 있었음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필자는 ‘개종’이라는 용어를 이 논문에서 계속해서 사용할 것이다.

9) Smith, *John Knox and the Scottish Reformation*, 156.

해하고, 세인트 앤드류스 성을 함락하였다.

이 반란 세력 가운데 녹스의 학생들의 부친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그들과 세인트 앤드류스 성까지 동행했다. 그곳에서 1547년 설교자 라우(John Rough)의 권유에 의해 설교자로서 청빙을 받았고, 독일로 가려던 자신의 유학 계획을 포기했다. 그러나 그 해 7월 프랑스에 의하여 성이 다시 함락되고, '노틀담'이라는 갈리선(galley)에서 녹스는 19개월간의 혹독한 노예생활을 경험하며 다시 설교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했다. 1549년 3월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6세(Edward VI)의 중재로 녹스는 프랑스 갈리선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녹스는 그가 소망하던 대로 '진정한' 설교자로서 목회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그 후 1554년까지 약 5년간 잉글랜드에서 에드워드 6세의 지원과 보호 아래 성공적인 목회활동을 해 나갔다.

녹스의 첫 임지였던 잉글랜드의 버윅(Berwick)은 스코틀랜드 남부지역에 가까운 잉글랜드 북서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의 회중은 주로 스코틀랜드와의 전투에서 돌아 온 잉글랜드 군인들과 가톨릭의 박해를 피해 내려 온 스코틀랜드 개신교 피난민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2년 후 더 남쪽에 위치한 뉴캐슬(Newcastle)에서 사역을 하다가 런던으로 이동한 후, 에드워드 6세의 궁중 설교자(King's chaplain)로 임명되어 잉글랜드의 왕 앞에서 설교를 했다. 잉글랜드 목회 기간 중 중요한 두 번의 중요한 '승진' 기회를 맞았지만, 두 가지 이유를 들어 거절하였다. 첫째로, 당시 공동기도서 사용에 대하여 녹스 자신의 신앙 양심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둘째로, 잉글랜드 북부 지역의 개신교인들을 목회하려는 사명감 때문이었다.¹⁰⁾

그러나 1554년 녹스는 잉글랜드 여왕이었던 "피의 매리"(Bloody Mary)의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프랑스의 디에페(Dieppe)로 망명하였다. 개신교의 종교 개혁을 지지하던 에드워드 6세가 1553년 7월에 갑자기 사망한 이후에, 독실한 가톨릭교인이었던 튜더 매리(Mary Tudor)가 잉글랜드의 왕위를 차지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개신교인에 대한 그녀의 박해는 시작부터 심각했던 것은 아니었다. 매리가 집권한 후 6개월이 지난 1554년 1월에 녹스가 비로소 잉글랜드를 떠난 것으로 보면 가톨릭의 박해는 서서히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전기작가 퍼시(Eustace Percy)의 지적처럼, 1554년에 녹스가 유럽 대륙으로 망명한 사건은 그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헤지라"(Hejira)¹¹⁾에 견줄만한 "유

¹⁰⁾ H. R. Sefton, *John Knox* (Edinburgh: Saint Andrew Press, 1993), 6-11.

럽 역사의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¹²⁾

프랑스로 피신한 녹스는 매우 활발한 저술 활동을 했다. 「에드워드 6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도문」, 「시편 6편에 대한 주석」, 「잉글랜드에서 박해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개신교인들을 향한 위로의 편지」, 「그리고 잉글랜드 교수들을 향한 충고」 등이 그것이다.¹³⁾ 그는 대륙의 종교개혁 지도자들과도 교제를 나누었는데, 그 해 3월 제네바에 가 칼빈(John Calvin)을 만나고, 다시 그의 소개로 취리히의 하인리히 불링거(Heinrich Bullinger)를 만났다. 녹스가 주장하던 불의한 군주에 대한 무력을 동원한 저항 이론은 두 스위스 개혁가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 칼빈에 따르면, “하나님¹⁴⁾을 위하여 반란을 정당화할 수는 있지만, 더 불순한 의도가 종교적인 열정이라는 망토 뒤로 가려질 수도 있다.”¹⁵⁾ 칼빈과 비슷한 입장을 취했던 불링거 역시 “경솔하고 부패한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유익한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우에 더 많은 기도와 지혜가 필요하다”¹⁶⁾고 말함으로써 녹스의 입장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녹스는 프랑스의 디에페로 다시 돌아 왔지만, 잉글랜드의 사정은 전보다 나아지지 않았다. 개신교를 지지하던 당시 잉글랜드 감독들이 옥에 갇히거나 가택연금을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지도자를 잃은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과거에 떠났던 가톨릭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비밀리에 잉글랜드에서는 기도와 성경공부, 그리고 상호 교제를 위한 모임들이 계속 진행되고

11) 이슬람교의 예언자 무하마드가 622년 쿠라이쉬 부족의 박해를 피해 메카를 떠나 메디나로 이주한 사건을 말한다.

12) Percy, *John Knox*, 167.

13) *A Confession and Declaration of Prayers upon the Death of that most virtuous and most famous King Edward the VI; The Exposition upon the Sixth Psalm of David; Two Comfortable Epistles sent to his afflicted Brethren in England; A Faithful Admonition to the Professors of God's Truth in England.*

14) 본 논문은 종교학 논문이므로, ‘God’을 일반 명칭인 ‘신’으로 해석해야 하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구교와 신교,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 사이의 신관에 대한 ‘차이’와 ‘긴장’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표준어 ‘하느님’ 대신에, 한국 개신교인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번역하며 진술을 이끌어 나가기로 한다. 각주 8번을 또한 참조하기 바람.

15) R. A. Mason, ed., *John Knox - On Rebell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xii-xiii.

16) David Laing, *The Works of John Knox*, vol. 3 (Edinburgh: Wodrow Society, 1895), 225.

있었다. 잉글랜드의 회중을 격려하기 위하여 녹스는 「잉글랜드에서 고통받고 있는 형제들을 위한 위로의 서신」을 썼는데, 이 글을 통하여 녹스는 시민법에 의하여 제정된 모든 것이 합법적이거나 정당한 것이 아니듯, 불신자들의 ‘반역’이라 단언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God) 앞에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¹⁷⁾ 뒤이어 같은 해 7월에 발행된 「잉글랜드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한 교수들에 대한 신실한 충고」에서도, “감정적인 한 여자에 의하여 강탈당한 정부는 이성 없는 분노와 같다는 격언은 역시 옳다”고 매리 여왕을 비판했다.¹⁸⁾ 이 글에서 녹스는 자신의 유약함을 자책하면서 잉글랜드에 있는 설교자들에게 예언자적 사명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오! 이 시대에 나의 양심이 나를 정죄한다. 행해야만 했던 나의 임무만큼 명확히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다. 나는 사악한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을 들어가며 말해야만 했었다.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엘리아, 엘리사, 미가, 아모스, 다니엘,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도 그리고 그의 사도들도 피에 굶주린 폭군들을 혐오스러운 우상숭배자이며 당대의 위선자들이라고 천명하셨다. 하나님께서 잉글랜드 영토에 있는 우리 설교자들도 세상의 소금으로서 임명하시지 않았던가!... 오! 왜 우리는 확연히 부패가 드러나는 곳에서 소금을 뒤로 감추고 있었는가?¹⁹⁾

이처럼 잉글랜드를 떠나 있는 동안 녹스는 설교자로서 목회적 사명을 다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문서를 통한 보다 비판적 활동에 몰입하였다. 녹스는 제네바의 종교개혁가들의 지도 아래 신학적 훈련을 더 받으려고, 1554년 8월 디에페를 떠나 제네바로 다시 돌아갔다. 그러나 그 해 11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잉글랜드 회중으로부터 담임목회자로 청빙을 받게 되고 칼빈의 권유에 따라 수락하였다. 그러나 그의 목회는 몇 달 지속되지 못했다. 제 2기도서의 사용에 대한 논쟁에 휘말리고, 독일 황제였던 칼 5세를 “네로만 큼이나 그리스도의 적”이라고 규정했다는 이유로 독일에서도 결국 축출되고 말았다.²⁰⁾

17) Laing *The Works of John Knox*, vol. 3, 236.

18) *Ibid.*, 296.

19) *Ibid.*, 269-270.

20) Smith, *John Knox*, 35.

Ⅲ. 1555년 귀환: “나의 나라” 스코틀랜드

독일에서 추방된 녹스는 제네바에서 1555년 여름을 보내다가, 그 해 9월부터 1556년 7월까지 약 10개월간 스코틀랜드를 방문했다. 대륙으로 망명하기 전에 이미 약혼한 잉글랜드 여인이었던 보위(Marjory Bowes)와 결혼하기 위해서였다. 녹스는 그의 장모에게 이렇게 글을 썼다.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당신을 통해 나를 내 자신의 안락한 소굴[제네바]에서 이끌어 내시어 (오직 당신만이 나를 조용한 서재에서 나를 끌어냈소) 우리 동포들의 절실한 목마름을 생각하게 하고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동포들은 밤낮으로 영생의 떡을 위해 울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나라에서 내 눈으로 그것을 보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그 현실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²¹⁾

이 서신의 내용은 첫 번째 귀환으로 녹스가 조국 스코틀랜드에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깊이 깨달았음을 보여준다. 그는 스코틀랜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혁의 분위기에 놀라며 동시에 기뻐했다. 이미 그가 방문한 모국은 1547년 프랑스의 노예가 되어 떠났던 스코틀랜드가 아니었다. 그는 에딘버러에서 큰 환영을 받았고 스코틀랜드 지역을 돌아다니며 설교 여행을 했다. 대부분의 중부 지역과 북으로는 몬트로스(Montrose) 근방의 던(Dun)까지 이르는 지역에서 종교개혁의 대의를 선포하였다. 세프턴(H. R. Sefton)은 이 설교 여행을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²²⁾

설교 여행을 하는 동안 던의 대지주였던 에어스킨(John Erskine)의 초대로 그곳에 머물며 인근의 개신교 지도자들과 교제를 하였다. 녹스는 가톨릭 미사의 참석을 극렬히 비판했고, 반면에 종교개혁을 지지하던 사람들을 모아 성찬식을 베풀었다. 이러한 일련의 종교 활동으로 인하여 녹스는 1556년 5월 15일에 에딘버러의 감독들 앞에 출두하라는 소환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감독 앞에 출두하는 대신에, 에딘버러 시민들에게 설교를 했다. 에딘버러 상인인 마조리뱅크(Thomas Marjoribanks)는 하이 스트리트(High Street)에 있던 자신의 건물을 빌려주어 녹스가 10일간 밤낮으로 설교하도록 도왔다. 이 당시 설교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에 관한 설교는 그 당

21) Laing, *The Works of John Knox*, vol. 4, 217.

22) Sefton, *John Knox*, 16-20.

시의 급박한 상황을 담고 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성경에 쓰여진대로, 사람의 참다운 생명과 행복은 육신의 것이 풍성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것을 소유하고 갖는 것이 사람에게 복을 받거나 행복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육신의 것을 곁여했다는 사실이 궁극적인 불행을 가져오지도 않는다. 반대로 사람의 참 행복은 하나님과 그의 입에서 선포된 약속에 있다. 그것을 고수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비록 세상 만물은 그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오기까지는 그의 육신을 멸하지 못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으며 자연의 순리와는 상반되는 먹이시고 보전하시며 유지하시는 수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인간의 양식 없이도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셨고, 고래 배수의 요나도 보호하셨고, 풀무로부터 세 자녀의 몸도 지켜주셨다. 이성과 자연인은 이러한 경우에 파멸과 죽음만을 보며,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을 돌보지 않는다는 사실만을 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의 피조물이 경험하는 극심한 위험 가운데에서 더욱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 위험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도우셨다. 그들이 그러한 위험에 처하지 않았더라면 맛보지 못했을 하나님의 영광이, 즉 그의 자비와 선하심이 그들의 고난 뒤에 더욱 분명해지고 빛나게 된다.²³⁾

이처럼 녹스는 종교개혁의 대의명분을 천명하며 ‘하나님의 말씀’(the word of God)에 의지하여 위험을 극복할 것을 개혁파에게 권면했다. 그는 이성과 자연의 섭리로써 자신이 처한 상황을 판단하지 않았고, 자신의 위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귀족들은 녹스를 시켜 섭정을 했던 매리에게 교회 개혁을 위한 서신을 쓰게 했다. 서신을 통해 녹스는 정치적 지배자는 잘못된 판사들뿐만 아니라 사악한 감독들도 징계할 의무가 있다고 피력했다. 물론 녹스 자신도 모든 미신을 단번에 제거하거나, 부도덕한 성직자들을 일시에 모든 자리에서 몰려나게 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했지만, 참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을 매리에게 간곡히 요구했다.²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교’(true religion)를 회복하자는 녹스의 설득은 그녀의 마음을 결국 움직이지 못했고, 이러한 상황을 예견한 듯 녹스는 스코틀랜드를 떠나 프랑스를 거쳐 제네바로 돌아갔다.

23) Laing, *The Works of John Knox*, vol. 4, 110-111.

24) Sefton, *John Knox*, 19.

IV. 1556년 망명: ‘하나님의 나팔소리’

녹스에게 1554년과 1556년의 귀환은 달랐다. 1554년 혼자 유럽 대륙으로 망명할 때와는 달리, 1556년에는 그의 아내와 장모를 함께 데리고 제네바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두 아들인 나다니엘(Nathaniel)과 엘리자(Eleazar)를 낳았다. 가족과 함께 제네바에 계속 머물 것만 같았던 녹스는 1557년 스코틀랜드 개혁과로부터 조국으로 귀국해 달라는 간곡한 서신을 받고 프랑스의 디에페로 가 겨울을 지냈다. 그는 디에페에서 1557년 말부터 1558년 초까지 머물면서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유명하며 동시에 가장 악명 높은 문서인 「여자의 괴물 같은 통치에 대항하는 첫 번째 나팔소리(The Frist Blast of the Trumpet against the Monstrous Regiment of Women, 이하 ‘나팔소리’)」를 작성했다.

물론 여자가 정치적 지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상은 당시 녹스 자신의 독특한 입장만은 아니었다. 그는 남성 지배자들이 행해야 할 정치적 권력을 여성 지배자들이 찬탈하여 스코틀랜드, 프랑스, 잉글랜드의 참된 신자들을 박해하는 것으로 당시 역사의 흐름을 판단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비판의 취지로 쓰여진 「나팔소리」를 비롯한 일련의 문서들은 그가 여자의 열등성을 매리 튜더를 넘어서 너무 일반화시켰기 때문에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여왕을 비롯한 주변의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다.

1558년 봄에 제네바로 돌아 온 녹스는 ‘신성한 혁명(godly revolution)’ 이론을 정립하는 노작에 박차를 가했다.²⁵⁾ 이미 언급한 잉글랜드로 보낸 「나팔소리」를 시작으로, 스코틀랜드의 독자를 고려한 「섭정 매리에게 보내는 서신」, 「귀족과 영주에게 보내는 항소」, 「평민들에게 보내는 서신」과 「두 번째 나팔소리」 등이 출판되었다.²⁶⁾ 녹스의 저항이론에 따르면, 백성은 군주에게 복종

25) R. A. Mason, ed., *John Knox - On Rebell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의 메이슨은 ‘설교자’나 ‘예언자’로서의 녹스보다는 정치권력에 저항할 것을 천명하는 녹스의 정치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26) 아래 네 문서는 1558년 스코틀랜드의 섭정, 귀족, 영주들, 그리고 평민들을 향하여 종교개혁의 취지를 천명하고자 기록되었다. ① *The copy of letter delivered to the Lady Mary, Regent of Scotland, from John Knox, minister of God's Word, in the year of our Lord 1556, and now augmented and explained by the Author, in the year of our Lord 1558*; ② *The Appellation of John Knox from the cruel and most unjust sentence pronounced against him by the false bishops and clergy of Scotland, with his supplication and exhortation to the*

해야 하지만, 지배자가 불법적인 요구를 해올 때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따르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귀족들과 영주들은 왕권에 도전해서라도 우상을 타파하고 참된 종교를 세울 의무가 있는 것이며, 반대로 평민들은 귀족들에게 종교개혁을 요구할 권리와 함께 의무도 있다고 주장했다.

녹스는 제네바 성경(Geneva Bible)으로 알려진 영어 성경 번역에도 참여하는 등 출판사업에 바빴다. 1558년 11월에 둘째 아들이 태어날 무렵, 그는 스코틀랜드의 초대를 다시 받았다. 그의 친구인 굿맨(Christopher Goodman)과 함께 제네바에 있었던 잉글랜드 회중의 목사로 공동목회를 했지만, 녹스는 1559년 1월에 그 회중을 굿맨에게 위임한 채 제네바를 떠나 프랑스의 디에페로 갔다. 「나팔소리」에 나타난 여성지배자에 대한 그의 과격한 논조에 분개한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녹스에게 그녀의 영토를 통행할 수 있는 비자를 지연시킨 끝에 발급해 주지 않았다. 녹스는 통행 허가를 기다리며 프랑스의 종교개혁자들과 교제를 하다가, 결국 더 이상 못 기다리고 배편으로 스코틀랜드의 리스(Leith)를 통해 1559년 5월 2일 에딘버러에 도착했다.

V. 1559년 귀환: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연합

녹스가 최종적으로 스코틀랜드로 귀환을 결정한 일은 급변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정치적 상황으로 설명된다.²⁷⁾ 첫째, 잉글랜드 정치상황의 호전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잉글랜드의 매리 여왕이 1558년 11월에 죽자, 이복동생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뒤를 이었다. 그녀는 개신교인이었고 로마의 교황은 그녀의 계승을 적법하게 여기지 않았다. 잉글랜드의 상황이 이렇게 변하자 제네바로 피신해 있던 잉글랜드 회중의 대부분이 잉글랜드로 속속 귀국하였다. 이로 인한 회중의 급격한 감소는 결국 녹스를 스코틀랜드로 귀환하도록 간접적으로 독려했다는 것이다.

nobility, estates, and commonalty of the same realm; ③ *To his beloved Brethren the Commonalty of Scotland, John Knox wisheth grace, mercy, and peace with the spirit of righteous judgement*; ④ *John Knox to the reader*. 마지막 문서는 “두 번째 나팔소리의 요약”(the summary of the Second Blast)으로 알려져 있다.

27) Sefton, *John Knox*, 23.

둘째,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기반이 안정을 찾았다는 이유를 들 수 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1557년 이래로 ‘회중의 의장단(the Lords of the Congregation)’이라는 개신교도의 확고한 조직이 마련되었다. 의장단들이 서명한 약정서에서 의장들은 “하나님과 회중 앞에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회중을 보전하고 정진케 하며 세우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신실한 목사들이 순수하고 진실되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례전을 그 백성들에게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약속했다.²⁸⁾ 이러한 종교개혁의 조직이 든든히 마련된 것은 1555년에 있었던 스코틀랜드에서의 녹스의 설교여행의 영향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의 호전 속에, 1559년 5월 에딘버러에 도착한 녹스는 일단 종교개혁파가 이전부터 강하게 자리잡고 있던 던디(Dundee)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녹스는 설교를 통하여 가톨릭의 미사를 우상숭배로 정죄했다. 미사가 드려지는 곳에서 평민들의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러한 민란으로 인해 카르투지오회 수도원, 도미니크회 수도원, 프란시스스코회 수도원 등이 속속 피해를 입었고 형상과 그림들이 파괴되었다. 퍼스와 스틸링이 개혁파에 의하여 함락되면서, 그 해 6월 11일 녹스는 세인트 앤드류스에서 설교를 했다. 이는 녹스가 과거 노예선에서 소망했던 바렘의 성취이기도 했다. 개신교 귀족들이 섭정의 군대를 에딘버러에서 축출함으로써, 녹스는 그 달 29일에 세인트 자일즈 교회에서 설교를 하였고 그 교회의 회중에 의하여 담임목사로 선출되어 목회를 하는 한편, 계속해서 스코틀랜드 지역을 돌아다니며 설교 여행을 했다. 이렇게 상황이 개혁파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 그해 9월 녹스의 아내와 가족이 제네바를 떠나 에딘버러에 도착했다. 그러나 상황은 다시 반전되었다.

가톨릭교회와 종교개혁파의 팽팽한 긴장 속에 ‘회중의 의장단’으로 대변되는 스코틀랜드 개혁파는 잉글랜드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고, 반면에 섭정 매리는 프랑스로부터 군사적 원조가 필요한 상태였다. 린세이(Thomas Lindsay)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종교개혁의 전체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시기”로서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그 대립의 상징성을 밝혔다.

전 유럽의 개신교의 생존은 스코틀랜드의 투쟁과 관계되어 있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는 그 역사상 처음이며 동시에 마지막으로 가장 원대한 꿈을 보았

²⁸⁾ Laing, *The Works of John Knox*, vol. 1, 273.

다. 수세기에 걸친 중세주의의 아성이었던 로마인가, 아니면 개신교의 보루였던 제네바인가라는 문제가 역사에 뒤떨어져 있던 북쪽의 조그마한 왕국[스코틀랜드]으로 향해 있었다.²⁹⁾

처음에는 모든 상황이 섭정 매리에게 유리해 보였다. 그녀의 사위인 프란시스(Dauphin Francis)가 1559년 프랑스의 왕위를 잇자 프랑스로부터의 원조가 확실해졌고, 섭정의 군대는 요충지 리스를 이미 확보하여 프랑스로부터의 상륙할 수 있는 발판을 확보한 상태였다. 반면에, 잉글랜드의 여왕 엘리자베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처음에 그녀는 또 다른 여성 군주에 대항하는 스코틀랜드의 반란자들을 돕기를 원치 않았다.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스코틀랜드 귀족들도 요충지 리트에서 밀려나 스티어링(Stirling)으로 후퇴해 있었다.³⁰⁾ 이처럼 종교개혁파가 정치적으로 몰리는 가운데, 그해 11월 녹스는 스티어링의 개혁파 지도자들을 향하여 시편 80편을 설교하였다.³¹⁾ 녹스는 그의 설교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시험받을 때 선택된 자(the elect)와 유기된 자(the reprobate)의 차이는... 성령의 신비로운 힘이 도우시는 선택된 자는 비록 그들의 기도가 무시되는 듯이 보여도 하나님께 계속 의지했다.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받으실만한 희생이며,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것과 같은 태도로 하는 것이다. 반면에, 유기된 자는 그들의 요청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 기도하기를 포기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비난한다. 하나님께선 우리에게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찾도록 엄격히 명령하셨지만, 유기된 자는 하나님께 얻지 못한 것을 악마에게 얻고자 한다....(중략)... 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 차례나 수치스럽게 격퇴되어 후퇴한 후에도 벤야민 지파를 이기게 하셨음을 확신하듯이, 지금 우리의 슬픔과 혼란 그리고 공포가 반드시 기쁨과 영예 그리고 담대함으로 변할 것임을 확신한다. 참으로, 우리와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몸뚱이가 어떻게 될지라도, 우리의 주장은 (사탄을 개의치 않고) 이 스코틀랜드 영토에 변성할 것이다.³²⁾

29) T. M. Lindsay, *A History of the Reformation*, vol. 2 (Edinburgh: T & T Clark, 1907), 295.

30) Sefton, *John Knox*, 25.

31)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로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취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개역성경 시편 80: 4-6)

32) W. C. Dickinson, ed. *John Knox's History of the Reformation in Scotland*, vol. 1 (Edinburgh: Thomas Nelson and Sons Ltd, 1949), 265-271.

이 설교 후에 개혁파는 글래스고우와 세인트 앤드류로 나누어 전열을 가다듬었고, 1560년 초에 프랑스군은 파이프(Fife)를 향하여 다시 공격을 감행했다. 개혁파는 잉글랜드의 지원을 기다리며 녹스의 지도하에 고군분투하였다.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엘리자베스 여왕은 회중의 의장단들과 리스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잉글랜드 군대의 파견을 결정했다. 이 소식을 접하자 섭정 매리는 글래스고우의 개혁파를 공격했지만, 4월에 잉글랜드의 지원군과 회중의 군대가 연합하여 반격해오자, 리스로 물러가 수륙으로 수비를 강화했다. 긴장이 감도는 상황 속에서 6월 섭정 매리가 예기치 않은 죽음을 맞았고, 7월 프랑스와 잉글랜드 사이에 에딘버러 조약이 맺어짐으로써 프랑스군은 스코틀랜드에서 완전히 퇴각하였다.

여왕의 부재와 귀족들의 분열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구조가 무너진 상태 위에 녹스는 스코틀랜드의 평민들을 주축으로 개혁교회의 기초를 마련하였다.³³⁾ 그가 중심이 되어 『스코틀랜드 신앙고백(Confession of Faith)』이 완성되었고, 이어 『제1 훈령서(The First Book of Discipline)』와 『공동예배서(The Book of Common Order)』가 마련되었다. 1560년 8월 24일 스코틀랜드 의회가 교황의 간섭과 미사의 집행을 최종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초석을 완성하였다.

VI. 제인 도슨의 이론: ‘정치적 정체성’은 새로운 대안인가?

지금까지 녹스가 스코틀랜드로 귀환하여 1560년 종교개혁의 초석을 쌓기까지 유럽대륙에서 보낸 망명기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기간 동안에 녹스가 대륙과 스코틀랜드를 오가며 활동한 점은 그의 정체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녹스에 대한 최근까지의 연구는 학자들의 성향 특히 종교적 성향 - 예를 들어 가톨릭학자는 부정적으로 개신교학자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왔다 - 에 따라 객관성을 결여한 채 편견에 의하여 왜곡되어 왔다.³⁴⁾ 녹스의 ‘삶의 자리’(context)에서 그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평가하기보다는 학자 자신의 삶의

33) R. Graham, *John Knox - Democrat* (London: Robert Hale, 2001), 187.

34) J. Kirk, “John Knox and the Historians,” ed. by R. Mason, *John Knox and the British Reformations* (Aldershot: Ashgate Publishing Lmt, 1998), 10.

자리에서 녹스를 재단하고 평가해 왔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녹스는 과연 누구인가? 19세기 칼라일이 '역사의 영웅'으로까지 칭송한 녹스는 21세기를 맞는 세속화된 포스트모던의 스코틀랜드 사회와 교회 가운데 더 이상 '신화'나 '전설'의 힘로서 기능하지 않고 있다.³⁵⁾ 그의 정체성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반된 의문들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고, 최근까지도 상충되는 결론이 대립되어 공존하고 있다.³⁶⁾ 녹스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창시자인가? 아니면, 잉글랜드 성공회의 지지자인가? 녹스는 스코틀랜드 정체성의 상징인가? 아니면, 오랜 잉글랜드인들과의 만남과 목회 가운데 '스코티쉬'(Scottish)를 버리고 '잉글리쉬'(English)의 발음과 태도를 수용한 잉글랜드인인가? 그는 부패한 가톨릭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한 자유와 정의의 수호자인가? 아니면, 엄격한 칼빈주의로 전연되어 스코틀랜드 영성의 숨통을 수세기 동안 조여 고통받게 만든 '배타주의적 근본주의자'인가? 그는 남성우월주의에 젖어 있었던 여성차별주의자인가? 아니면, 현대 민주주의의 기초자인가? 이러한 끝없는 논쟁의 역사를 여기에서 자세히 다 소개할 수는 없다. 오히려 필자는 녹스의 정체성 문제에 대한 논쟁에 대하여, 도슨(Jane Dawson)³⁷⁾이 제시한 하나의 대안인 "두 명의 존 녹스(Two Knoxes)" 이론을 검토하고 그 특징과 한계를 지적해 보고자 한다.³⁸⁾

도슨에 따르면, 녹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시대착오적인 연구방법과 함께 녹스의 정황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다. 1558년에 발간된 문서들의 경우에, 같은 해에 발간되긴 했지만, 각각 서로 다른 수신자와 목적에서 작성된 문서들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558년의 문서들 중 봄에 출판된 『나팔소리』는 튜더 매리의 박해 가운데 있었던 잉글랜드의 개신교인들을 향하여 작성된 것이며, 그 후 7월에 출판된 후속문서들은 스코틀랜드의 수

35) R. A. Mason, "Introduction," ed. by R. A. Mason, *John Knox and the British Reformations* (Aldershot: Ashgate Publishing Lmt, 1998), 1.

36) J. Kirk, "John Knox and the Historians," 7-26. 커크는 그의 논문에서 녹스를 둘러싼 역사학자들의 논쟁사를 잘 정리해 놓고 있다.

37) 잉글랜드 더럼대학교에서 1978년 크리스토퍼 굿맨의 정치사상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지금은 에딘버러 대학교 신학부에서 기독교사, 특히 16세기 종교개혁사를 강의하고 있다.

38) J. E. A. Dawson, "The Two John Knoxes: England, Scotland, and the 1558 Tracts," *Journal of Ecclesiastical History*, Vol. 42, No. 4 (October 1991): 555-576.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수신자와 목적에 따라 문서들을 분리하여 이해해야 한다. 1558년 문서들을 한대 묶어 잉글랜드 교회를 넘어서 스코틀랜드 교회와 유럽 대륙의 개혁교회 전체를 수신자로 고려하게 되면, 문서들 가운데 나타나는 상반된 그의 정치사상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도슨은 문서들의 수신자뿐만 아니라 그 목적도 달랐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시 두 나라에서 가톨릭 세력은 상당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개신교인들을 향하여 서로 다른 정책을 사용하고 있었다. 잉글랜드에서는 혹독한 박해가 진행되고 있었고, 반면에 스코틀랜드에서는 다소 관용적 태도가 보여 지고 있었다. 녹스는 두 나라의 문제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였으며, 그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는 잉글랜드에서는 혁명을 희망하며, 반면에 스코틀랜드에서는 점진적인 변화를 구상하며 그의 문서를 작성했다.³⁹⁾

먼저, 「나팔소리」는 하나의 구체적인 목적, 즉 잉글랜드의 튜더 매리 여왕을 폐위시키기 위해서 출판된 것이다.⁴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녹스는 무리하게 자신의 논리를 비약시켰고, 결국 성경과 교부들, 철학자들의 증거를 들어 ‘여성의 열등성’을 일반화하였다. 결국 여성 군주의 지배는 하나님의 의지와 법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여자로서 매리는 정치를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간에 상관없이 왕좌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⁴¹⁾ 반면에, 스코틀랜드에서는 어린 여왕이 프랑스에 가 있는 동안 그녀의 모친이 섭정을 하고 있었으므로, 잉글랜드에 비해서 중앙집권적 통치가 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튜더 매리 여왕과는 달리, 섭정 매리는 개혁파를 지지하는 귀족세력에게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도슨의 지적처럼, 녹스는 잉글랜드의 개혁파에게 한 권면과는 달리, 스코틀랜드의 귀족들에게 섭정 매리와 어린 스코틀랜드 여왕의 폐위를 요청하지 않았다. 오히려 개신교 예배가 공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순수한 종교적 동기”로서 정치적 선동이나 반역에 관여하지 않도록 설득했다. 이미 잉글랜드에 적용한 가톨릭 지배자의 정치적 정통성에 대한 정면대결의 태도를 녹스는 스코틀랜드의 정황에는 분명히 적용하지 않았다.⁴²⁾ 그러나 녹스의 기대와는 정

39) Dawson, “The Two John Knoxes,” 556.

40) *Ibid.*, 559.

41) *Ibid.*, 562.

반대로 역사는 진행되었다. 잉글랜드에서는 튜더 매리의 사망으로 엘리자베스 여왕이 즉위하는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종교개혁이 오히려 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고, 반면에 스코틀랜드에서는 점진적인 개혁이 아닌 '종교혁명'의 한 가운데에 녹스가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개혁에 참여해야 했다.

도슨은 이러한 점에서 녹스가 두 가지 '정치적 정체성'을 지녔다고 주장한다.⁴³⁾ 그녀에 따르면, 녹스는 스코틀랜드인이며 동시에 잉글랜드인이었다. 그가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기는 했지만, 잉글랜드인들과 살면서 잉글랜드의 언어와 문화를 수용하면서 잉글랜드인으로 살았다는 것이다. 녹스는 노예선에서 풀려난 후 잉글랜드에서 5년 동안 목회생활을 했으며, 가톨릭의 박해를 피해 유럽대륙으로 피신을 간 후에도 프랑크푸르트와 제네바에 있는 잉글랜드 회중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였다. 첫 번째 망명시에 잉글랜드의 회중을 매리 여왕의 핍박 가운데 두고 온 것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고, 두 번째 망명 후에도 잉글랜드인 아내 마조리와 함께 제네바로 돌아와 잉글랜드 회중에게 말씀을 전하며 살았다.

또한 녹스가 1555년에 스코틀랜드로 첫 번째 귀환한 목적은 그의 약혼자를 제네바로 데려오려는 것이었으므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이라는 대의를 가슴에 안고 결행한 것이 물론 아니었다. 그리고 그가 조국에 도착한 후에 스코틀랜드의 놀라운 변화를 "자신의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가 계획한 대로 제네바로 다시 돌아간 일은, 녹스가 스코틀랜드 개혁과 지도자들보다는 잉글랜드 회중을 최종 선택했다는 주장을 가능케 한다. 또한, 1557년 5월에 받은 스코틀랜드의 개혁파의 귀국요청에 대해서도 녹스는 바로 응답치 못하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하였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부름을 받으라"는 칼빈의 충고에 따라 그가 제네바를 떠나 스코틀랜드로 향한 것은 9월에나 가서였다.⁴⁴⁾ 결국 도슨은 12년간의 긴 망명기간을 통하여 녹스가 잉글랜드인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42) *Ibid.*, 567.

43) *Ibid.*, 556, 558, 571, 576.

44) Dickinson, *John Knox's History of the Reformation in Scotland*, 132-133.

VII. 종교적 정체성: ‘제사장’ 녹스와 ‘예언자’ 녹스

그러나 도슨이 녹스의 ‘정치적 정체성’ 문제에 대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 “두 명의 녹스” 이론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녹스는 도슨의 주장과는 달리, 잉글랜드인이 아닌, ‘항상’ 스코틀랜드인으로 살았다. 녹스의 정치적 정체성 문제를 논할 때, 그가 잉글랜드인들과 함께 살며 그들을 목회한 사실 자체는 ‘녹스 자신이 잉글랜드인으로서 살았다’는 해석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가 장모 보위에게 쓴 편지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녹스는 스코틀랜드를 “나의 나라”로, 동시에 스코틀랜드인들을 그의 “동포”로 여기고 있었다.

둘째, 도슨은 정체성 문제에서 녹스를 ‘정치적 인물’로만 환원함으로써, ‘종교인’(religious man)으로서 녹스의 정체성을 간과했다. 녹스가 16세기 정치 상황에 깊이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를 정치적 인물로만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의 시작과 발전,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는 개혁과 ‘목회자’로서 남아 그 역할을 감당하였다. 그의 대부분의 저작이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궁지에 몰린 개혁과 인사들을 격려했고, 자신이 직면한 역사적 위기의 의미를 설명하며 그 한계를 극복하려 했다.

셋째, 도슨은 현 ‘영국(United Kingdom)’의 정치와 종교 상황을 16세기 녹스의 정체성에 투영함으로써, 녹스 자신의 삶의 정황을 이해하는데 실패했다. 그녀는 국가적 정체성 즉 국적(nationality)을 구별하는 정치적 관점에서 녹스의 정체성 문제를 다루었다. 1707년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영국으로 연합된 이후의 현 영국 상황에서 볼 때, 녹스의 정체성 안에, 브리티쉬(Britishness)와 스코티쉬(Scottishness)의 정체성을 가진 ‘두 명의 녹스’가 존재했다는 이론은 한편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16세기에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는 지금과 달리 서로 적대하며 독립된 왕국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녹스는 가톨릭의 종교적 핍박을 피하여 스코틀랜드 망명가로서 잉글랜드와 유럽 대륙에서 개신교 회중을 대상으로 목회했던 것이다.

넷째, 도슨은 ‘종교인’(homo religiosus)으로서 녹스가 지녔던 종교적 정체성을 간과하였다. 종교지도자로서의 녹스는 두 가지 정체성의 팽팽한 긴장 속에 살았다. ‘제사장/목회자’(priest/pastor)로서의 정체성과 ‘예언자/개혁

가(prophet/reformer)로서의 정체성이 그의 내부에서 상호 충돌하고 있었다. 그는 유럽 대륙에 망명하는 동안 자기 자신의 종교적 역할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했다. 그는 개혁교회 '목회자'로서 왕성한 활동을 했으며, 망명한 잉글랜드의 회중을 독일과 제네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대륙으로 망명하기 전에도 '목회자'로서의 사명감을 강하게 천명한 바 있었다. 예를 들어, 그가 잉글랜드에서 승진의 기회를 거절한 것은 지역 회중에 대한 목회적 사명감 때문이었다. 또한 매리의 박해를 피해 대륙으로 망명한 후에도 녹스는 죄책감에 사로 잡혀 당시 잉글랜드에서 박해를 받고 있던 개신교인들에게 편지로 위로하고 격려하였다.

또한, 스코틀랜드에서 개혁과 지도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개혁의 바람을 확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마조리를 데리고 다시 제네바로 돌아온 것은 당시 제네바에 남아있던 회중에 대한 '목회자'로서의 사명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의 '목회적 심정'(pastoral mind)을 무시한 채,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사이에서 그가 잉글랜드의 정체성을 더 선호해서 제네바를 선택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녹스는 그를 청빙했던 회중에 대한 '목회자/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이 요청되었고, 동시에 "올바른 기독교의 진리"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의 '개혁가/예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다. 제네바에서 칼빈을 비롯한 주변의 권유에 못 이겨 스코틀랜드로 가기로 결정한 것도 제네바의 회중을 향한 그의 '목회자'로서의 고민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VIII 결론

요컨대, 녹스는 귀화한 잉글랜드인이 아니라, 민족적 자긍심이 강한 스코틀랜드인이었다. 오히려, 우리는 그를 '목회자'와 '개혁가'라는 두 가지 상충되며(어쩌면 서로 보완되는) 역할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창조적으로 감당한 '종교인'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 인용할 칼라일의 지적처럼, 우리는 녹스 자신을 앞으로든 계속될 '추문과 논쟁'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줄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녹스를 변호할 수 없다. 이백 오십 년 후에 사람들이 그에 대해 말하는 것은 녹스 자신에게는 무관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의 투쟁을 자

세히 알고 그가 이룩한 승리의 결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를 둘러싼 추문과 논쟁을 넘어서 녹스 자신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⁴⁵⁾

그러나 1550년대 종교개혁가 녹스가 유럽 대륙과 스코틀랜드 사이에서 망명과 귀환을 거듭했던 행적을 ‘그의 삶의 정황에서 그의 눈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한 인간으로서의 녹스 자신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녹스의 정체성 문제에 대하여 도슨은 ‘녹스는 스코틀랜드인이며 동시에 잉글랜드인이었다’는 정치적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녹스를 정치적 인물로만 ‘환원’(reduction)하기보다는 그의 ‘종교적 정체성’(religious identity)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병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녹스는 16세기에 ‘타락한’ 가톨릭 교회에 대항하여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이라는 과업을 수행한 ‘역사의 영웅’이었다. 그는 스코틀랜드 개혁파 목사로서 잉글랜드 회중을 목회했고, 동시에 그의 ‘조국’ 스코틀랜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우려고 노력했다. 따라서 녹스가 대륙으로 망명한 후반기 동안 보여진 그의 정체성을 둘러싼 문제는, ‘종교적 정체성’이라는 범주 아래에서 ‘개혁가’로서의 녹스와 ‘목회자’로서의 녹스 사이에 긴장과 갈등의 관점에서 보다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45) Carlyle, *On Heroes, Hero-Worship, and the Heroic in History*, 172.

참고문헌

- Carlyle, T. *On Heroes, Hero-Worship, and the Heroic in History*. London: Chapman & Hall Ltd, 1840.
- Dawson, E. A. J. "The Two John Knoxes: England, Scotland, and the 1558 Tracts." *Journal of Ecclesiastical History*, vol. 42. no. 4 (October 1991): 555-576.
- Dickison, W. C. *John Knox's History of the Reformation in Scotland*, vol. 1. Edinburgh: Thomas Nelson and Sons Ltd, 1949.
- Laing, D. ed. *The Works of John Knox*. Edinburgh: Wodrow Society, 1895.
- Lindsay, T. *A History of the Reformation*. vol. 2. Edinburgh: T & T Clark, 1907.
- Macdiarmid, H., C. Maclean and A. Ross. *John Knox*. Edinburgh: The Ramsay Head Press, 1976.
- Mason, R. A. ed. *John Knox - On Rebell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_____. ed. *John Knox and the British Reformations*. Aldershot: Ashgate, 1998.
- McEwen, J. ed. *The Faith of John Knox*. London: Lutterworth Press, 1961.
- Percy, E. *John Knox*.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37.
- Sefton, H. R. *John Knox*. Edinburgh: Saint Andrew Press, 1993.
- Smith, G. B. *John Knox and the Scottish Reformation*. Edinburgh: The Religious Tract & Book Society of Scotland, 1905.
- Watt, H. *John Knox in Controversy*. Edinburgh: Thomas Nelson and Sons Ltd, 1950.

<Abstract>

On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of Religious Identity
in Understanding Humanity

— The Case of John Knox in the 1550s —

Ahn, Shin

This paper argues that in order to understand humanity, the study of religious identity is not an option but rather a necessary step. Examining the case of Scottish reformer, John Knox (1514-1572), especially his multiple exiles and returns in the 1550s, I will show the tension and complexity of two different types of religious identity within the personality of Knox himself: that of prophet (or reformer) and that of priest (or pastor). In spite of the ambiguity regarding his date of birth and early education, the identity issues related to his political views and nationality have been some of the most complicated topics to be discussed among scholars. Depending on the religious positions of the scholars themselves, however, the academic world has produced many distorted and contradictory images of Knox. Therefore, the author attempts to interpret Knox in his own context and from his point of view.

Knox spent eighteen months as a galley-slave after Scottish Protestants were defeated by pro-Catholic French forces in 1547. On his release, he worked as a minister of the Church of England in Berwick, Newcastle, and London for first five years. After the death of Edward VI, he was exiled to Geneva and stayed with Calvin. He was invited to minister to the English congregations in Frankfurt and then in Geneva. Because of his theological position against rituals, he resigned. After he preached in Scotland for nine months, Knox came back to Geneva and served refugee English congregation. During this period, he produced numerous works, including *Frist Blast* against the Monstrous Regiment of Women (1558).

He continued to communicate with the reform party in his native land and finally left for Scotland in January 1559.

The reform party became much stronger during the absence of Knox. After he returned to Edinburgh in May, 1559, Knox led the Scottish Reformation. Since reformers tried to keep Scotland independent from France with the help of England, Knox negotiated with England to secure its financial and military support and completed the Reformation process after the unexpected death of Marie de Guise, the regent for the young Mary I of Scotland in June 1560. The Scottish Parliament denounced the doctrines, worship, and government of the Roman Church, and Knox produced the Confession of Faith, The First Book of Discipline, and the Book of Common Order. The Church in Scotland was reorganized on the Presbyterian tradition.

According to Dawson, Knox had two different plans in Scotland and England in 1558. He wanted a gradual reformation in Scotland, but also a revolution in England. Dawson argues that Knox was not only a Scot but also an Englishman by emphasizing his long ministry with English congregations in foreign countries. But, the author objects to Dawson's theory of two Knoxes as a political reductionism. Arguing that Knox has been always a Scot in spite of his long exposure to English culture and language, the author holds that the scholars should examine Knox's life and his context in light of Knox's two different types of religious identity: as a priest/pastor and as a prophet/reformer.

Key words: religious identity, religious man, John Knox, Scottish Reformation, political reductionism, priest/pastor, and prophet/reformer